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문서번호 : 2004-02-21

날 짜 : 2004년 02월 21일

발 신 :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서강대학교 여성위원회,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대학교 인문대여성모임연대, 서울대학교 사회대여성주의연대, 서울대학교 법대 여성주의로 놀자! 놀이터, 서울대학교 농생대여성연대모임,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문과대여성주의 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대 사회대 공동체 '비욘드', 연세대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수 신 : 마포경찰서 기자실

참 조 :

제 목 : 취재요청서(기자회견 안내)

1.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교성절연)는 대학 내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대학 여성단위 등이 모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2. 지난 몇 년 동안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담론이 대학 사회 내부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교수성폭력 뿌리 뽑기 연대회의> 등의 단체가 활동해왔습니다.

3. 그러나 그간의 대학 내 반성폭력 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낮추어 복직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 그 중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의 경우는 재심의 결과, 해임의 징계처분이 정직 3개월으로 감경되었습니다.

5. 이에 교성절연은 서강대학교가 K교수 성폭력 사건의 부당한 재심위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래서 서강대학교가 행정 소송을 조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7. 집회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본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8.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좋은 기사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문서번호 : 2004-02-16

날 짜 : 2004년 02월 16일

발 신 :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서강대학교 여성위원회,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대학교 인문대여성모임연대, 서울대학교 사회대여성주의연대, 서울대학교 법대 여성주의로 놀자! 놀이터, 서울대학교 농생대여성연대모임,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문과대여성주의 모임 '모반', 연세대학교 사회대공동체 '비온드',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수 신 : 서강대학교

제 목 : 서강대 K교수 성폭력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촉구합니다.

1.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교성절연)는 대학 내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대학 여성단위 등이 모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교성절연은 가해교수를 구제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의를 대한 문제제기, 각 대학 반성폭력 학칙(규정)의 보완, 각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조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예방교육 실시 요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아시다시피 서강대에서도 최근 잇따라 두 건의 교수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의 K교수 성폭력 사건과 2003년의 국문과 H교수 성폭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K교수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지난한 해결 과정 끝에 교수의 2차 가해를 인정하여 가해교수에게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문과 H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교수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교수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육부 산하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H교수의 징계가 파면에서 파면 취소로, K교수의 징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되었습니다.

3. 그렇지만 교성절연은 재심의를 의해 낮춰진 징계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심의 제도가 더 이상 가해교수의 구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심위가 내린 징계가 아닌, 처음에 학교 측에서 내린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처음 결정이 번복되어버린 서강대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